

광주시민 79.1% “개헌 찬성…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반대”

57.1%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67.2% “대선 결선투표 도입”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해야… 시민 대다수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현안 여론조사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 대다수는 개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일 발표한 주요 정치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9.1%로, 반대(9.7%)를 압도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개헌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57.1%로 과반을 넘었다. 30.5%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1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최근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나고 있는 전국적인 여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해왔다. 장기적인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정책 추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서 국정 효율성을 해치고, 국가의 장기적 전략을 실행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7.2%로, 반대(21.4%) 의견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결선투표 진행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데는 대선 후보 가운데 표를 제일 많이 차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 다수제 방식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대표성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한

48.56%를 득표율을 차지해 47.83%의 득표율을 얻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1% 포인트도 되지 않는 0.73% 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서 여야 갈등과 국민여론 분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46.8%로, 중선거구제 개편 의견(34.4%)을 앞섰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300석인 총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로 나타났다. 현행 의석수 유지 의견은 20.7%, 의석수 확대는 7.5%였다. 이는 시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의원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의견이 높은 배경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방식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현행 권리당원 50%대 일반국민 50%를 합산해 반영하는 경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행률 유지 의견이 3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 국민 비중 확대 의견(30.4%), 권리당원 선거인단 비중 확대 의견(9.7%) 순이었다. 권리당원 100%를 반영하는 민주당 책임공천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4.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 형태로 실시했다. 조사 방식은 기존 웹조사와 달리 수신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을 발송해 응답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조사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면서 “그 결과를 중앙당에 전달해 개혁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입춘방 써주기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立春)을 이틀 앞둔 2일 광주 북구 운암3동 주민센터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입춘방을 써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초저출생 대책위’ 출범… “국가소멸 걱정해야”

의원 23명 참여… “총선 공약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당내 별도 대책기구를 띄우고 활동에 들어갔다.

의원 23명이 참여하는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법안 등 정책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

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초저출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이다. 민생 대책과 인구 대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소

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인구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부분적 개편에 불과하다”며 “있을 수 없는 정책 후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현재 저출생-인구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으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소식 생생하게 보도

광주일보 지면·유튜브·SNS에

광주일보가 3년 만에 재개된 KIA 타이거즈의 해외 전지훈련 소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한다.

KIA는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파크에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2023시즌을 위한 여정에 돌입했다.

오는 24일까지 애리조나에서 1차 스프링 캠프

를 진행하는 KIA는 이후 일본 오카나와로 무대를 옮겨 3월 9일까지 담금질을 이어간다.

KIA는 새로운 외국인 강속구 듀오인 손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 양현종, 나성범, 이의리를 비롯한 WBC 국가대표 등을 중심으로 올 시즌 뜨거운 가을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5일부터 새 시즌의 시작점이자 올 시즌 전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애리조나 캠프에 취재진을 파견해 빠르고 생동감 넘치게 현장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지역 언론사 중 유일하게 플로리다 포트마이어 캠프 현지 취재를 진행했던 광주일보는 이번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

지면은 물론 광주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훈련 모습, 선수들의 각 오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 트위터, 페이스북 등 광주일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물론 피드백을 통해 독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에도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수어의 날, 청각장애인 만나보니 ▶6면
복스 - ‘음식 중독’ ‘감정관리도 실력’... ▶14-15면
디그 53개... 페퍼스 오지영 신들린 수비 ▶19면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새싹 엑스 복합비료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실험 결과(49~54세 여성, 평균(연령: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2021년 05월 03일)